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

‘눈덩이’ 비리 의혹에 결국 낙마

여권·검찰 내부에도 비판 여론 확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여권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청와대는 천 후보자 임명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으나, 메가톤급 악재가 발생,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 총장에 취임할 수 있지만, 그동안 도덕 흠결 등으로 총장 직무 수행과정에서 조직장악 등에 무리를 불러오고 여권 전체에 미칠 부담을 의식해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의 전격 사의 표명 이전까지만해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공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임명 강행의지를 내비쳤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천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등 여권 핵심에서는 천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모습도 보였었다. 실제로 여권 일부에서는 천 후보자가 사생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임명에 부정적 반응도 나왔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 등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천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 개혁의지에 있어서 모두 수준미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자”라면서 “천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부인의 고급차량 리스 승계, ‘스폰서’와의 해외동반 골프, 호화 해외여행, 위장전입 등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천 후보자는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결국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가운데) 의원이 14일 오전 정세균 대표 주재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철회 기자간담회에서 천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빛났다

千후보 청문회 논리적 공박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이 드러나 자진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 까지는 청문회 석상에서 차분한 논리로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따진 민주당 박지원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박의원은 13일 열린 청문회에서 천성관 후보자의 아들 위장전입 문제, 아들 호화 결혼식 문제, 부인의 고가 명품 해외쇼핑문제, 지인 박모씨와의 부적절한 교분등에 대해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내정자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시인을 끌어내는등 노련한 화술을 구사했다.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천 후보자는 곧바로 “그렇다”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또 천 후보자 아들이 서울시내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공개한 뒤 “호화 결혼식 개최, 호화 아파트 구입, 해외골프여행, 면세점 호화쇼핑,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 대해 국민이 ‘강부자(강남 땅부자)’라고 할 지 ‘서민’이라고 할지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또 천 후보자와 천 후보자에게 아파트 매입자금 15억5천만원을 빌려준 사업가 박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집중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자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천 후보자 부부와 박씨 부부가 2004년8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일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천 후보자 부인이 박씨 등과 해외 여행 때 명품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 후보자가 박씨와 같이 하는 모임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도 압박하는등 청문회 준비가 어느정도 면밀했는지를 암시하기도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천 후보자 부인의 면세품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 김모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샌들과 핸드백, 의류, 향수, 속옷과 잠옷 등 27점, 1만973달러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느 직책에 있든 부동산 투기를 한 일이 없으며 박씨와는 전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진 뒤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千때문에… 아까운 검찰 인재들만 줄퇴임

명동성·이귀남·문성우 등 아쉬운 사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이후 사의를 밝힌 검찰 고위 간부들이 14일 잇따라 퇴임식을 갖고 검찰 조직을 떠났다.

명동성(56) 법무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연수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29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명 원장은 “검찰에서 젊음을 불태울 수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며 “검사의 일이 너무 험하고 예민한 일인 만큼 항상 스스로를 일깨우는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명 원장은 강진 출신으로,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특수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광주고·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문성우(53) 대검차장은 오후 3시 대검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에 몸담은 동안 ‘내가 맡은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과 ‘나보다 나은 후배들이 검찰을 이끌도록 후배 교육에 힘쓰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또 전문성 강화가 검찰의 나아갈 길이라며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보다 똑똑한 후배를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차장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 “(변호사 개업이나 법무법인) 어느 쪽도 결정되지 않았다. 당분간 쉬면서 좀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의 문 차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임채진 전 검찰총장 퇴임 후 한 달 가량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앞서 신상규(60) 광주고검장은 오전 11시 광주고검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28년간 아쉽고 회한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다”며 “늘 어려움을 함께하며 꿋꿋이 버텨온 검찰 가족 모두에게 셀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입고 간다”고 말했다.

또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51·사시24회)도 이날 오전 퇴임식을 하고 25년간의 검사생활을 마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17일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문성우 대검찰청 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관계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위). 신상규(아래 왼쪽) 광주고검장이 14일 광주고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영렬 광주지검장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내주 문광부장관 면담 ‘오월의 문’ 등 수용 촉구

도청별관 10인대책위 ‘합의안’ 문광부 제출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가 다음주 중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식면담, ‘오월의 문’ 등 지역사회 합의안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10인 대책위 간사위원인 조영택 의원은 14일 “10인대책위의 합의안을 이날 문화수도조성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으며, 다음 주 중 유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합의안 수용을 권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월의 문’ 안은 옛 도청 별관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대안으로, 지역 12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원탁회의’가 10인 대책위에 제시한 방안이다.

조 의원은 “이날 유인촌 장관을 만나 지역사회 합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며 “10인 대책위가 마련한 합의안이 지역사회의 뜻인데다, 복수 안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무턱대고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영기기자 penfoot@